

기고

서관수 험평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선거,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길”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침체된 사회분위기와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 등 대내외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여건 속에서 선거가 차려질 상황이다.

투표하려 가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한 후 손소독제를 바르고 나서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하게 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전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후로 방역을 실시하고 발열 선거인에 대해서는 임시기표소를 마련한다. 당연히 투표소의 사무원은 모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인이 사용하는 기표용구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전 투표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

된 요즘 선거운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길거리, 시장, 광장을 누비며 유권자를 만나는 후보자, 확성장치의 우렁찬 지지호소 소리와 음악소리, 같은 색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의 단체 유통 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장 위주의 선거운동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나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당·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리고자 하는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유권자들은 그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자연스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투표율 또한 낮아질까 우려하는 시선도 많아진 게 사실이다.

선거권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선거는 국가의 대사로서 단합된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자 그 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반증이라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스로 말고는 아무도 투표권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투표는 우리 스스로가 꼭 행사해야 할 소중한 권리인 것이다.

특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해 해결하고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과 극복,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윤리를 선택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객관적인 자세와 냉철한 시각으로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비전”, 그리고 “자질”을 판단해야 하고, 가짜 뉴스, 부정확한 정보, 각종 루머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험혹되거나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

이다.

우리나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사람은 누구인지,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정당·후보자별 선거공보나 TV토론회·연설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후보자 세부정보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 게시된 정책·공약 등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좋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수많은 정보에 대한 꼼꼼한 비교·평가와 명확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과거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어땠을까. 6·25전쟁 직후 혼란한 상황이었던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총선의 투표율은 91.1%였고, IMF 외화위기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들어했던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80.7%였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힘은 대단했었고 국민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존재였던 것이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는 희망찬 길 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바란다.

社說

본선거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기대한다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했다. 총 유권자 4천400만명 가운데 1천170만명 정도가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전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처럼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니 놀랍다. 이 여세를 몰아 본선거에서도 높은 투표율이 나오길 기대한다.

돌발변수는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19다. 총선 당일인 15일 투표장에 많은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유권자들이 자기방어적 관점에서 서둘러 투표를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 측면에선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오로지 정당용 득표로만 의석을 가져간다. 진보와 보수 양 진영 층위에서 최종 의석 분포는 정당투표의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살피하면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어쨌든 선거는 유권자들의 권한이자 의무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15일 본선거에 꼭 참여하길 바란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킥라니 공포 무한질주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극복하자

요즘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필자도 도대체 이말이 무슨말인지 궁금하여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더니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도로에 불쑥 뛰어나오는 것이 마치 고라니 같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킥라니라는 말이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킥보드 피해로 이런말이 생겼을까 싶어 서글픈 마음도 들었다.

요즘 킥보드가 시중에 시판되면서 직장인과 일반인은 물론 학

생, 대리운전업체 종사자까지 그 애벌레 대중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이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라면 한번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곤욕을 하며 갑자기 골목길이나 주차된 차량 앞에서 불쑥 뛰어나오거나 차량 사이를 빠른 속도로 획 지나쳐 달려가는 킥보드 때문에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낯선 풍경이 아닌지 오래다.

문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

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로지 차도를 이용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행해야 하지만 상당수 킥보드 운전자들이 안전모등 보호장비 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밀리는 차도 보다 운행이 자유로운 편에 속하는 인도를 운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보행자와의 충돌 우려성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전동킥보드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덩

달아 사고도 증가하면서 2017년과 2018년 사이 개인형 인동수단 인명사고로 총 289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니 이제 전동 킥보드 사고 여파도 거히 무시할수 없을 시대에 살고 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들은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자신의 안전도모와 더불어 보행자의 안전도 우선시하는 인식 전환으로 만약에 발생할수도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김덕형 /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기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긴급전화

등록번호 광주기 00021 (일간)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호남신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대표전화 (062) 229-6000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고국 (062) 224-5800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2길 16-1 Tel (02) 2238-0003
기자제보 (062) 971-7400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팩스 (062) 222-5547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